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희망 전하고파”

기아 오토랜드 광주 산타원정대

초록우산에 2천만원 후원금 전달
어린이 겨울옷 등 성탄선물 지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어린이들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들어줍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8일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

후원금 전달식은 이날 오전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진행됐으며, 김희준 기아 오토랜드 광주 경영지원실장은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



지난 8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김희준 기아 오토랜드 광주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기아 직원들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공

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광주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옷, 신발과 같은 성탄선물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성탄파티에 사용되며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의 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욱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산타원정대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억7800만원을 전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손금주 전 의원 출판기념회 ‘금주의 시선’ 성료

내년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오후 3시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금주의 시선- 리셋, 새로운 세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출판기념회는 ‘나주, 화순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 살리기 10년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1부 기념행사와 2부 이철희 전 정부수석이 진행하는 북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손 전 의원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과 기관단체, 시민사회단체 나주시민 화순군민 등 1만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이해찬 전 대표의 추천사와 홍익표 원내대표 축전, 송영길 전 당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변재일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김영진 당대표정무조정실장, 주철현 원내부대표 등이 축하영상을 보냈다. 또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축전을 전달했다.

최황지 기자



농협광주본부, 광주교육청에 김장김치 전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한제규)에서 후원하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전달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15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0상자(10kg)가 돌봄이웃 아동청소년 300세대 전달됐다.

양가람 기자



오경훈 기본사회연구소장 출판기념회 성황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오경훈 소장이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오경훈이 만난사람’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사진)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지역 정계인사와 지지자, 주민 등 2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훈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서운주 상근부대변인은 축전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강명진 바이올리니스트, 정통 라틴 밴드 부에나모멘토의 공연과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오 소장은 “‘오경훈이 만난사람’은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삶을 꿈꾸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책을 소개했다.

이어 “화려하진 않지만 17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시청, 국회, 남구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내 이웃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정치를 광주시민과 함께, 남구민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 소장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동남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은지 기자

문승욱 구례군의원,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구례군의회는 문승욱(사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구례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승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구례군 거주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해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13세~18세 청소년이며 연 20만원의 금액을 바우처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문화, 체육 시설,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등의 목적으로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승욱 의원은 “청소년들이 구례에서 꿈과 희망을 품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주 시민에 실전형 소방 안전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강운정 서부소방 소방교 ‘최우수’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운영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문용)는 지난 7일 광주 북구 충효동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제10회 광주시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각 소방서와 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안전강사 9명이 참여해 청소년 대상 화재 안전을 주제로 열린 경연을 펼쳤다.

강운정 강사(서부소방서 소방교)가

최우수 강사로 선정돼 광주시장상을, 김대명 강사(남부소방서 소방장)가 우수상, 김흥규 강사(동부소방서 소방교)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 강사는 “평소 소방안전교육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설계하고 연구하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발생 때 시민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강사는 내년 소방청에서 개최하는 제10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 워크숍·유공자 표창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이사장 서동균)는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철처호 텔람 컨퍼런스홀에서 ‘2023년 광주평생교육강사 워크숍 및 유공자 표창’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김선옥 사장의 강의와 평생교육 공로패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이어16명의 국가 평생교육사 30기 졸업식과 2부에서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한국평생교육연합회는 평생교육 유공과 관련해 분야별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정활동 부문은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홍기월 광주시의원과 박희을 광주시의원 김재식 광주동구의장이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교육인상에는 강성심 유치원장과 황인에 사회복지원장 배서연 부티션, 황여울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선정됐다. 산업인력공단 표창은 박정아, 차현아, 한새라씨가 선정됐고, 구청장표창은 이정화, 박혜원, 임수연씨가 받았다.

이용환 기자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일곡중, 발전소 건립 계약

광주일곡중 옥상에 282.2kW 규모 시민햇빛발전소가 세워진다.

10일 광주시교육청과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 일곡중학교에서 김주신 교장과 최미옥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건물 사용 수익자가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광주교육청은 학교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인허가 행정지원과 학교 옥상부지 제공 등 사업에 협조하고,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사용료 납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을 지

원한다.

김주신 일곡중 교장은 “일곡중을 시작으로 여러 학교들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학생과 시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옥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300 학교로 햇빛발전소를 늘려가면서 2045 탄소중립, 나아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